

# 임실군, 지역 농특산물 홍보 앞장

### 서울 3곳서 직거래장터 운영, 110여 품목 20% 할인 임실엔TV 구독 이벤트도... 치즈 구매 시너지 효과

전북특별자치도 심 민 임실군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치즈 등 지역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에 직접 참여, 판매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군은 지난 25일 자매결연지인 서울시 강서구를 시작으로 내달 2일까지 마포구와 양천구 등 서울지역 3곳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고, 운영한다.

지역 농특산물은 대표 특산물인 임실치즈와 요거트 등 각종 치즈 가공 각종 유제품과 한우 등 육류, 한과, 나물, 다슬기 제품, 버섯, 조청 등 110여 품목을 선보인다.

이 제품들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9월에 개회한 직거래장터에 이은 새해 설맞이 직거래장터에는 임실엔치즈클러스터, 축협 등 임실군 관내 15개 업체가 참여한다.

지난 25일 강서구 마곡나루역 진입광장에서 열린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심 민 임실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바뀐 임실군을 알리고, 지역 농특산물을 직접 홍보·판매에 적극 나서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심 군수는 또한 전북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만나 양 지역 간 분야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 군수는 진 구청장에게 "자매결연 지역으로서 농특산물은 물론 관광과 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양 지역 간 발전에 힘을 모으자"며 "육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치즈테마파크 등 관광교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 구청장은 "임실은 치즈로 전국적인 명성이 자자하고, 치즈테마파크 등을 가졌는데 너무 잘해 왔더라"며 "자매결연 지역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직거래장터에는 임실군청이 운영 중인 유튜브인 임실엔TV 구독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 구독자에게 소량의 임실N치즈를 제공, 홍보하는 이벤트에 주민들은 물론 젊은 직장인과 학생 등이 대거 몰리는 등 상당한 호응을 얻으며, 치즈 구매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냈다.

임실군의 대도시에서의 직거래장터 행사는 최근 기상이변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임실군 농특산물 이미지가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청정 임실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이런 행사를 통해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상생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난 25일 강서구 마곡나루역 진입광장에서 열린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심 민 임실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 임실군을 알리고 있다.

# 전동 보조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인상

### 순창군, 스쿠터 150만원→192만원·전동휠체어 188만원→236만원

순창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해 큰 호평을 받은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올해는 지원금액을 늘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 단계 더욱 가깝게 다가갈 방침이다.

군은 당초 의료급여 수급자와 등록 장애인에 대상으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민선 8기 최영일 군수 출범 이후 매년 거동 불편 노인들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대상자를 소득 제한 없이 일반 노인까지 확대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군은 올해 시중에서 보편적으로 구입하는 전동보조기기의 금액을 반영해 스쿠터는 기존 150만원에서 192만원으로, 전동휠체어는 188만원에서 236만원으로 인상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순창 관내 어르신들은 더 나은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물론, 농촌 특성상 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보로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관내 거주하는 노년층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의사(전문)가 발행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순창군 관내 보조기기 판매업체에서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올해부터 군에서 지원한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비도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수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동보조기기 수리 신청 후 수리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과 구입 비용을 상당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향상시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어르신들은 꼭 안전 수칙을 준수해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 스마트농업 추진 촉구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임실 스마트농업 추진을 촉구했다.



최근 스마트농업이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의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와 각 지자체

들이 전략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종민 의원은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스마트농업 기반시설 구축에 나섰다."

임실도 서둘러 스마트농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진 방안으로 △임실 스마트농업 중장기계획 수립, △국가 스마트팜 공모사업 적극 대응, △임실군 스마트농업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농업 전담부서 설립 등을 제안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안전한 대피요령 숙지 중요"

남원소방서(서장 박현)가 지난 26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안전한 대피요령 숙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주택은 밀집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발생시 연소 확대 위험성이 크고 계단이나 복도, 승강로 등을 통한 급속한 연기 확산으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23년) 도내에서 발생한 공동주택(아파트) 사고는 315건으로 47명(사망 3명, 부상4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중 18.1%가 대피 중 사고로 발생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무리한 대피보다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선 실내에 대기하며 구조요청을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으며, 이때 상황에 맞는 행동요령과 판단이 중요하다.

자택에서의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대피가 어려울 경우 피난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타지 않아야 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나 자택 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염 또는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창문과 현관문을 닫고 상황을 주시하며 구조를 기다린다. /남원=김기두 기자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 모집

### 남원시보건소, 만 65세 이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오는 1월 29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 2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만성질환과 허약 상태로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6개월간 스마트폰과 건강측정기기(블루투스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AI스피커)를 활용,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담 인력의 1:1 교육으로 본인의 스마트폰에 '오늘 건강' 전용앱을 설치



하고, 앱과 연동되는 건강측정기기를 이용해 규칙적인 건강측정과 신체활동, 식사 및 약 복용, 마음 돌봄 등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2024년에는 방문건강사업과 AI 사업을 통합 연계해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

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면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자 기준은 만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건강위험요인(혈압, 혈당, BMI) 판정 수치 중 1개 이상인 어르신, 식생활, 신체활동, 투약관리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이며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최민자 과장은 "어르신 건강을 위해 참여 기간 어려움이 없도록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한 건강관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군, 친환경 농업 의무 교육 및 정책설명 회동

순창군이 최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 추진하는 읍·면 순회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및 정책 설명이 지역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친환경농업 의무 교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 인증(신규·갱신)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2년마다 최소 1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군은 교육에 앞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비롯해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 직불금, 생산장려금, 재해보험료 등 현재 순창군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도 병행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올 상반기 유튜브 시민 영상기자단 모집

남원시는 시민의 관점으로 본 시청 현장과 지역의 각종 문화, 관광, 시청 소식을 취재하고자 2024년 상반기 유튜브 시민 영상기자단을 오는 2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남원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은 '남원 시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현장 취재 및 영상 편집이 가능한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며, 신청은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2월 13일 시 홈페이지와 시 공식블로그, 인스타그램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민 영상기자단으로 선발되면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각자 맡은 부문·분야별로 다양한 주제의 시청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